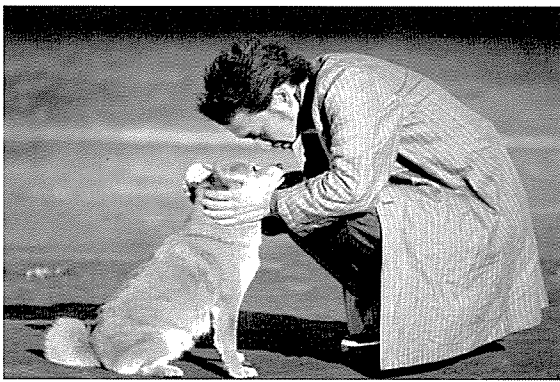




인간에게 가장 충직한 개, 그리고 병술년 개띠 해

올해는 병술년(丙戌年) 개띠 해다. 그래서인지 개띠와 관련된 인물, 사건, 역사 등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개는 천성적으로 인간을 잘 따르고, 특히 주인을 섬기는데 있어서 개만큼 충직스런 동물도 드물다. 그래서인지 12띠 중에서도 개띠에게는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58년 개띠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모든 이들이 활달한 개처럼 올해 경기가 활짝 퍼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개는 우리 일상사에서 이처럼 무시당하지만, 인류의 오랜 벗으로서 인간과 가장 가깝게 생활해 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개를 기르면 잡귀와 병 등의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이 있는 상서로운 동물로 대접받아 왔다. 옛 그림에 개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 개, 헌신과 충복의 대명사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인 개(戌).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서 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月)로는 음력 9월을 상징하는 방위신이며 시간신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 온 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헌신'과 '충복'의 대명사로 통한다. 목숨을 걸고 주인을 살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다. 설화 속에서 개는 충성과 의리를 아는 의견(義犬)으로 그려진다.

그런가 하면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를 따라 가면 칩간으로 간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귀하다' 등 개는 비천함의 상징으로 우리 속담에 자주 등장한다. 또 '개XX', '개만도 못한 X' 등 말다툼할 때나 누구를 욕할 때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살구', '개똥', '개꿈', '개판' 등 앞에 '개'자를 붙이면 사물의 격이 보잘 것 없어 진다.

▶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

오늘날 과학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크게 변했어도 개는 인류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개의 역할도 집지키기에 그치지 않고 한 집안의 가족으로서 희노애락을 같이 한다.

또한, 개가 범인을 추적하거나 마약 및 폭발물을 찾는 데도 큰 몫을 담당하는 등 경찰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에 개는 길을 안내하는 등 일상생활을 돕고 활력을 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실험을 통해 규명됐지만, 조만간 애완견이 주인의 암을 미리 경고해 주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매런카운티의 암전문병원인 파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 연구진이 개를 이용해 암냄새 탐지 실험을 한 결과, 개들이 특정암 냄새 탐지에 99%의 정확성을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1월17일(현지시간)자 보도했다.

마이클 맥컬러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의 실험에 참가한 개는 폭탄냄새 탐지 훈련중이었던 레브라도종 3마리와 포르투갈 토종개 2마리. 연구진은 폐암 환자 55명, 유방암 환자 31명, 건강한 사람 83명의 호흡을 채취한 후 개들에게 냄새를 맡게 했다. 건강한 조직과 달리 종양에서는 소량의 알칸(메탄계 탄화수소)과 벤젠과생물질이 나온다는 연구결과를 응용한 것. 개들은 암 냄새를 맡으면 그 자리에 앉도록 훈련받았다. 실험결과 폐암환자의 경우 99%의 정확성을 나타냈고, 유방암 환자는 84%를 찾아냈다. 건강한 사람의 호흡샘플을 맡은 개들이 암환자로 착각해 자리에 앉은 것은 딱 4번 뿐이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 개띠는 정직하고 지적이다?

띠풀이 책에 보면, 12띠 중에서 개띠는 정직하고 지적이며 일관적이기에 가장 바람직한 띠로 꼽고 있다. 헌신적이며, 믿을 수 있으며, 강인하며, 신뢰할 수 있으며, 끈기가 있으며, 관대하며, 지략이 풍부하며, 책임감이 있으며, 품위가 있으며, 생각이 깊으며, 너그로우며, 겸손하며, 솔직하며, 열정적이



며 등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신들린 사주풀이'(류상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신들린 사주풀이'에 의하면, 개띠는 대개 부모형제와 인연이 없고, 여자는 수다쟁이가 많으며, 재물을 모으는 일이나 자립심이 강하다고 적고 있다. 특히, 여자는 팔자가 세고 남자는 성욕이 강하다고 한다. 더구나 호언장담을 잘하는 달변가이나 남녀 공히 자기 일에 몰두하여 가정에는 소홀하며, 사치스런 경향이 많고 새로운 일을 찾아 행하는 추진력,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근심과 고난도 많다고 한다.

▶ 58년생 개띠는 유별나다?

상대방의 나이나 띠를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띠, 용띠, 쥐띠 등 생년은 생략하고 띠만 말한다. 하지만 58년생 개띠들은 그렇지 않다. 초면이든 구면이든 58년생에게 나이를 물으면, 대부분이 '58년 개띠'라고 힘주어 대답한다. 과연 58년 개띠에게 뭔가 있는 걸까?

예술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운동가 등 58년생 개띠 27명이 필자로 참여하여 1월말 출간예정인 '이 시대의 화두, 58 개띠에게 축배를'이라는 책은 58년생 개띠의 입을 통해 듣는 58년생 개띠 이야기이다.

일단 58년 개띠들에겐 그들을 동지의식으로 묶어 주는 몇 개의 키워드가 있다. 그 첫 번째가 '가난'이다. 책보따리와 고무신, 원조옥수수빵 등 허기를 달랠던 기억이 그들을 묶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시험 전형과 고교평준화 정책 등 최초의 뽕뽕이 세대로서 선배에게 멸시당하고, 후배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들만의 결속력이 더욱 다져져 사회의 주목을 받는지도 모른다.

모든 이들이 병술년 개띠 해를 맞아 활달한 개의 이미지처럼 올해 경기가 생생하게 살아나기를 고대하고 있다.